

중국어 어휘요목의 설계 기준에 관한 고찰*

정윤철**

◁목 차▷

- I. 들어가기
 - II. 설계 기준에 대한 논의
 - III. 설계 기준 체계에 대한 논의
 - IV.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 설계 방안
 - V. 나오기
-

I. 들어가기

외국어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교육과정의 설계(curriculum design)¹⁾’와 ‘교수요목의 설계(syllabus design)’이다.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과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며, 교수요목(syllabus)은 그 중 평가를 제외한 것으로 주로 ‘내용(content)’의 설계에 대한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설계는 외국어교육의 체계와 효율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중국어교육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교육의 핵심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 대체로 교육과정은 있으나 단계별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교과목 간 연계성이나 교재의 유기적 결합력이 약한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교수요목은 교육과정과 교재의 중간 단계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재

* “이 논문 201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3”)

** 부산외국어대 중국어학부 부교수

1) 교육과정은 영문으로 ‘course’라고도 한다.

를 통해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학습자의 각도에서 볼 때, 단계별 학습 목표가 되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어휘는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재료이자 단계별 교육의 주된 구분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어교육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런 까닭에 어휘요목의 마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계별 외국어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중국어교육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어휘요목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어휘요목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²⁾ 본고는 중국어 학습용 어휘요목의 개발 필요성에서 구상되었다. 개발 필요성은 국내에서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를 아우르는 어휘교수요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개발된 어휘요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서 대두되었다. 교수요목은 교육 목적, 학습자의 특성, 교육과정의 특성(단계, 기간 등) 등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개발된 어휘요목은 개별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어교육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래 중국에서 많은 중국어교육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國別化’라는 키워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어휘요목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설계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못하면 그 결과물의 합리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기존에 연구되었던 설계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교육용 어휘요목의 설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설계 기준에 대한 논의

중국어교육에서 어휘요목은 단계별 교육 목표 및 교재의 편찬, 평가 등과 직접적

2)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정윤철, 〈통합적 중국어 교수-학습 요목의 개발에 관하여〉: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9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09, 8쪽 참조.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중국어 어휘요목은 중국어교육에 필요한 어휘가 각 등급별로 제시되고 각각의 단어들에 품사, 의미, 독음 등의 일정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어휘요목 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요목과 관련된 중국의 논의는 대부분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이하 「詞彙大綱」)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이는 「詞彙大綱」이 1992년에 제정된 이후 중국어능력시험 및 교재 편찬의 중요한 근거이자 규범이 되어 중국의 중국어교육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³⁾ 張霞·邱野(2012: 96-98)에서는 「詞彙大綱」이 제정된 후 약 20년 동안 이루어진 「詞彙大綱」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詞彙大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크게 8가지⁴⁾로 구분하고 있다.

- ① 단어의 빈도(選詞頻度) ② 어휘의 구분(詞語切分) ③ 어휘의 등급 분류(詞語分級) ④ 품사 표기(詞性標注) ⑤ 어휘의 조정(詞語篩選) ⑥ 접사(詞綴) ⑦ 어휘량(詞彙量) ⑧ 경성 및 '兒'화(輕聲兒化)

위의 8가지는 기존 각각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詞彙大綱」의 제반 문제점을 망라한 것인데,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휘요목의 구성부분에 따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① 단어의 빈도(選詞頻度)', '② 어휘의 구분(詞語切分)', '⑤ 어휘의 조정(詞語篩選)'은 모두 어휘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어휘 선정 기준'으로 귀납시킬 수 있으며, '④ 품사 표기(詞性標注)', '⑥ 접사(詞綴)', '⑧ 경성 및 '兒'화(輕聲兒化)'는 모두 수록된 단어의 설명 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단어의 정보 제시'라고 묶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어휘의 등급 분류(詞語分級)'는 어휘의 등급 귀속의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등급의 분류 기준이다. 등급

3)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干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73쪽 참조.

張霞·邱野, 〈“漢語水平詞彙和漢字等級大綱”研究20年述評〉; 淮海工學院學報 第10卷, 2012, 96쪽 참조.

4) 尹春梅도 유사한 고찰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① 選詞頻度 ② 詞語切分 ③ 詞性標注 ④ 詞彙量 ⑤ 詞語分級 ⑥ 詞義標注 ⑦ 體例規範의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尹春梅,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問題研究綜述〉; 烏魯木齊成人教育學院學報, 2008, 35-37쪽 참조.

분류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눌 것이며 각 등급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어들을 어떠한 등급에 귀속시킬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비록 「詞彙大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등급 귀속 문제만을 다루고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와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요목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등급 분류 기준’이라는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㉞ 어휘량(詞彙量)’은 사실 어휘요목의 설계 기준에 따라 변동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설계 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중국어 어휘요목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어휘의 선정’, ‘등급 분류 기준’, ‘단어의 정보 제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휘의 선정 문제

중국어 어휘요목의 설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중국어 어휘요목과 관련된 기존 연구도 대부분 어휘 선정 문제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김광해(1995)에서는 어휘 선정의 방법을 크게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절충적 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객관적 방법’이란 기준을 전적으로 통계 수치에 두는 것으로 빈도수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관적 방법’이란 선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빈도수에만 의존할 경우 특정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어휘가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본 어휘를 선정할 경우 빈도가 낮아도 필요한 어휘가 있기 때문이다. ‘절충적 방법’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수정하여 더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는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결국 중국어교육에 부합하는 어휘 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이 합리적으로 결합된 ‘절충적 방법’이 취해져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합리성’의 여부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이 ‘합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어휘요목과 관련해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바 우선 중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詞彙大綱」은 ‘목표의 정성적 규정→정량적 통계→정성적 선택→정량·정성적 등급 어휘 요목 마련’의 과정을 통해 편찬⁵⁾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한 절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劉英林·宋紹周(1992: 7-10)에서는 「詞彙大綱」의 편찬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빈도 통계의 각도: 상용성 원칙(常用性原則), 균형성 원칙(均勻性原則)
- ② 언어학의 각도: 과학성 원칙(科學性原則), 규범성 원칙(規範性原則)
- ③ 중국어교육의 각도: 실용성 원칙(實用性原則), 연상성 원칙(聯想性原則)
- ④ 학생의 언어습득의 각도: 포용성(절약성) 원칙(包容性(節省性)原則), 서열성(등급성) 원칙(序列性(等級性)原則)

劉英林·宋紹周(1992: 7-10)에서는 「詞彙大綱」의 편찬 원칙을 위와 같이 4가지 각도에서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원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빈도 통계의 두 가지 원칙 중 ‘상용성 원칙(常用性原則)’은 빈도수를 말하며, ‘균형성 원칙(均勻性原則)’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말뭉치 자료에서의 출현 빈도가 균형적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언어학 각도의 ‘과학성 원칙(科學性原則)’은 주로 수록되는 단어의 단위 기준을 말하며, ‘규범성 원칙(規範性原則)’은 언어의 규범성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방언어휘의 배제, ‘兒’화, 경성 표기 등에 적용된다. 중국어교육의 각도의 ‘실용성 원칙(實用性原則)’은 중국어교육의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품사 분류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상용되는 구나 구조 및 성어, 관용어 등을 포함시키는데 적용된다. ‘연상성 원칙(聯想性原則)’은 빈도나 통계에 의한 불완정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로 어휘장(주제, 계열, 반의 등)과 유사구조의 처리 등에 적용된다. 학생의 언어습득의 각도에서 ‘포용성(절약성) 원칙(包容性(節省性)原則)’은 어휘 수록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원칙으로 주로 ‘竹子(竹)’, ‘鴨子(鴨)’ 등과 같은 이음절과 단음절 동의어, ‘早晨(早上)’, ‘熱水瓶(暖水瓶)’ 등과 같은 이음절 이상의 동의어, ‘照相機(相機)’, ‘電冰箱(冰箱)’ 등과 같은 축약어 등을

5) 劉英林·宋紹周, 《論漢語教學字詞的統計與分級(代序)》: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 1992, 6쪽 참조.

처리하는데 적용된다. '서열성(등급성) 원칙(序列性(等級性)原則)'은 어휘의 등급 분류를 말하는데,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등급 분류는 반드시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빈도 통계를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 등급 분류는 반드시 실제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으로 對外漢語教學의 목표 및 각각의 학습 시기의 목표와 서로 부합해야 한다. 셋째, 등급 분류를 할 때 어휘 자체의 상황과 함께 한자의 빈도 통계도 아울러 고려하며 한자의 종류를 고려한다.

이러한 「詞彙大綱」의 편찬 원칙은 대체로 어휘 선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휘 선정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詞彙大綱」의 어휘 선정 원칙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첫째는 중국인의 언어생활에 근거하고 문어자료와 구어자료가 혼재하는 빈도통계 자료⁶⁾를 주요 근거로 함에 따라 중국어교육이라는 사용 영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小偷', '蚊子', '哈欠', '拉鏈' 등)의 누락, 중국문화와 관련된 어휘('北京', '上海' 등의 지명, '孔子', '毛澤東' 등의 인명, '武術', '太極拳' 등의 기예명 등)의 누락, 동일 어휘장 내 단어('中餐', '晚餐'은 있으나 '早餐'은 없으며, '外科'는 있으나 '內科'는 없음)의 누락 등의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⁷⁾

둘째는 빈도통계 자료가 주로 단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빈도수를 측정하다보니 다품사어 가 하나의 단어로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품사어인 '特別'의 경우 형용사만 제시되어 있을 뿐, 부사는 누락되어 있는데 '全', '擁擠', '夢', '鬧', '圖', '根本', '摩擦' 등의 다품사어도 마찬가지로 다른 품사가 누락되어 있다.⁸⁾

셋째는 어휘의 수록 단위의 문제로, 빈도 통계와 더불어 수록 단위의 문제를 명

6) 「詞彙大綱」는 빈도 통계에 있어 《現代漢語頻率詞典》, 《現代漢語常用詞詞頻詞典》, 《中小學漢語教學用詞表》, 《現代漢語常用詞庫》, 《信息處理用現代漢語常用詞表》, 《北京口語調查》, 《現代漢語常用字表》의 7종을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7)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幹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74쪽 참조.

王漢衛, 〈論詞彙大綱研制原則〉;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第3期, 2007, 14쪽 참조.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3쪽 참조.

8)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幹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77쪽 참조.

확하게 설정하지 않다 보니 형태소와 단어, 구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태소인 ‘掌’, ‘鋤’, ‘錘’ 등은 수록되어 있으나 단어인 ‘手掌’, ‘鋤頭’, ‘錘子’ 등은 누락되어 있으며, ‘從~到~’, ‘除了~以外’, ‘一~就~’ 등의 구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白白’와 같은 중첩형식, ‘遇到’, ‘對了’ 등과 같은 ‘내용어+기능어’ 결합형 어구들도 수록되어 있다.⁹⁾

넷째, 어휘의 시대성과 관련된 문제로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새로운 어휘들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光盤’, ‘硬盤’, ‘上網’, ‘互聯網’, ‘裝修’, ‘保安’ 등 현대사회의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누락되어 있다.¹⁰⁾

다섯째, 형태소 간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圖書館’은 있으나 ‘圖書’는 없으며 ‘人道主義’는 있으나 ‘人道’는 없다. 또 그 반대의 경우로 ‘電視’는 있으나 ‘電視機’은 없으며 ‘堤’와 ‘壩’는 있으나 ‘堤壩’는 없다.¹¹⁾

2. 등급 분류 기준

『詞彙大綱』의 등급 분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선정 어휘의 등급 귀속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첫째로는 구어화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용되는 단어들의 등급 귀속이 부적절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臥室’, ‘地鐵’ 등은 丁급에 속해 있는 반면 ‘纖維’, ‘礦石’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그리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은 각각 乙급과 丙급에 속해 있으며, ‘外祖母’와 ‘外婆’의 경우 후자가 더 구어화 되어 있음에도 ‘外祖母’는 丙급에 ‘外婆’는 丁급에 속해 있다.¹²⁾ 둘째로는 의미항목에 따른 빈도 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의미항목별 등급 분류가 되지 못하여 의미항목 간의 등급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9)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9쪽 참조.

張霞·邱野, 〈“漢語水平詞彙和漢字等級大綱”研究20年述評〉; 淮海工學院學報 第10卷, 2012, 97쪽 참조.

10)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7쪽 참조.

11)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30쪽 참조.

12)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干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74쪽 참조.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7쪽 참조.

다. 예를 들어 ‘就’의 경우 부사와 접속사의 용법이 모두 甲급에 귀속되어 있으나 ‘以前就他一個人知道, 現在大家都知道了’에서와 같이 ‘僅僅’의미의 부사 ‘就’는 ‘拿起書包就走’, ‘只要用功, 就能學好’의 두 문장에서 쓰인 ‘就’의 용법보다는 등급적으로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詞彙大綱」에서는 이와 같이 다의어나 다품사어의 등급 귀속의 부적절성이 다수 보이는데 이는 의미항목별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 것이다.

3. 단어의 정보 제시

「詞彙大綱」에서는 각 등급별로 단어의 품사와 독음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일부 다품사어의 경우, 품사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經常’, ‘確實’, ‘一律’ 등은 형용사로만 표기되어 있고 부사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품사 표기를 함에 있어 접사의 경우 접두사는 ‘頭’로 접미사는 ‘尾’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반 언어학에서 ‘詞尾’는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단어의 구성에는 사용되지 않는 슬어이므로 ‘前綴’, ‘後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III. 설계 기준 체계에 대한 논의

중국어 어휘요목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어휘요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II장에서 살펴본 「詞彙大綱」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기준 자체의 모호성과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큰 상관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詞彙大綱」은 4가지 각도에서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王漢衛(2007)에서는

13)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干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77쪽 참조.

14)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干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81쪽 참조.

이 원칙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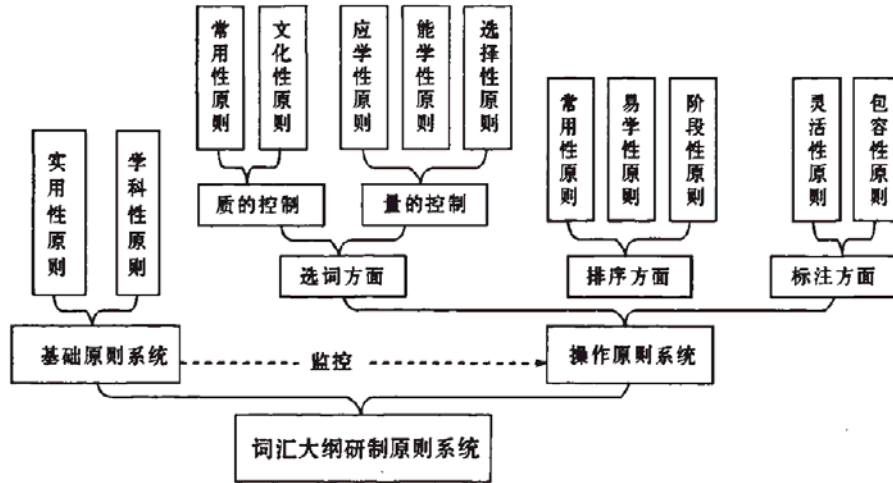
첫째, 원칙에는 기초 층위의 원칙과 조작 층위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劉英林·宋紹周(1992)에서는 ‘실용성 원칙’을 “對外漢語教學의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품사 분류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단어 보다 단위가 큰 상용되는 구나 구조 및 성어, 관용어를 수록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용성’을 조작 원칙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실용성’은 단어의 선정, 등급 배열, 단어의 정보 제시 등 여러 측면에 적용되는 기초 원칙이다.

둘째, 원칙의 분포가 불균형적이라는 것이다. 劉英林·宋紹周(1992)에서 제시된 8가지 원칙은 모두 조작 원칙에 속하며, 조작 원칙 또한 조작 체계 내에서 불균형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급 배열(排序)’은 ‘어휘 선정(選詞)’ 및 ‘정보 제시(標注)’와 함께 중요한 내용이지만, 劉英林·宋紹周(1992)에서는 배열과 관련해서는 ‘서열성(등급성) 원칙(序列性(等級性)原則)’ 하나만이 제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등급 배열을 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원칙의 체계가 가합(加合)관계일 뿐 입체적인 생성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에는 어떤 단어를 수록할 지라는 ‘질’의 문제와 얼마만큼의 단어를 수록해야 하는지라는 ‘양’의 문제가 있으며 양자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劉英林·宋紹周(1992)에서 볼 때, ‘상용성 원칙’은 ‘질’의 실현 원칙이며 ‘균형성원칙’ 또한 ‘질’의 실현 원칙이다. 또 ‘실용성 원칙’과 ‘연상성 원칙’도 모두 ‘질’의 실현 원칙에 해당하는데 둘은 모두 ‘상용성 원칙’과 병렬될 수 없는 것이다. 劉英林·宋紹周(1992)에서 볼 때 ‘실용성 원칙’은 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용성 원칙’의 하위 원칙이 된다. 또 ‘연상성 원칙’은 하나의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조작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원칙의 내용이 교차된다는 것이다. ‘상용성 원칙’, ‘균형성 원칙’, ‘실용성 원칙’, ‘연상성 원칙’은 모두 ‘질’과 관련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또 ‘과학성 원칙’, ‘규범성 원칙’, ‘실용성 원칙’ 및 ‘포용성 원칙’의 경우 실제로는 모두 단어의 단위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王漢衛(2007)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성성(生成性)’, ‘이원성(雙部性)’, ‘균형성(平衡性)’, ‘상호보완성(互補性)’의 4가지 원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설계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설계 체계를 보면 우선 크게 '기초원칙'과 '조작원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초 원칙'이 '조작 원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작원칙은 다시 '어휘 선정', '등급 배열', '정보 제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영역에는 하위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설계 체계의 특징적인 면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이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실용성 원칙'이다. 王漢衛(2007: 13)에 따르면 '실용성 원칙'은 우선 어휘 선정에 있어 문어 자료를 기초로 하였던 과거의 '상용성'을 배제함으로써 구어어휘가 중시되는 역할을 하며, 등급 배열에 있어서도 단순히 갑을병정의 등급 배열을 따르지 않고 학습내용과 학습기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등급 배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 '실용성 원칙'은 '선택성 원칙'과도 연관이 있는데 '선택성 원칙'이란 어휘량을 학생과 교육 자체에 자유 선택도를 주어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실용성 원칙'에 근거한 결과이다. 王漢衛(2007: 13)는 '실용성 원칙'이 하나의 형이상학적 원칙으로 조작 층위의 구체적 원칙에 투사됨으로써 어휘요목의 실용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이 설계 체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어휘 선정의 양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능력성'이다. '학습 능력성'은 학습해야 할 어휘량이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조절되어야 함을 말하는데, 이는 「詞彙大綱」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王漢衛(2007: 15)에서는 '일반유학생 학부 4년의 어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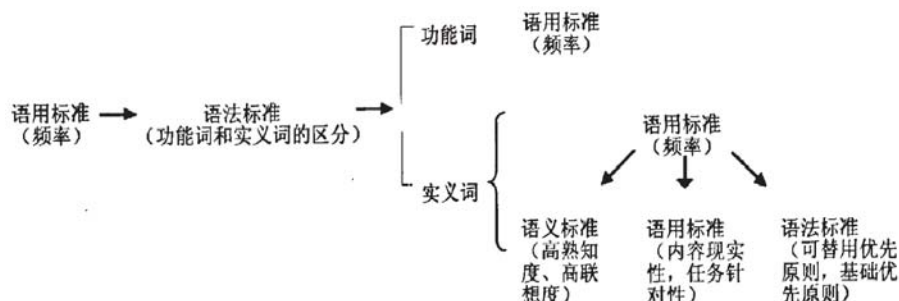
‘우수 유학생 학부 4년의 어휘량’, ‘중국 외국어계열 학생 4년 어휘량’, ‘중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어휘량’ 등으로 구분하여 어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설계 체계는 설계 과정의 층위가 구분되어 있는 입체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또 ‘어휘 선정’, ‘등급 배열’, ‘단어의 정보 제시’라는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구조적으로 볼 때 매우 짜임새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조작 원칙 체계의 3가지 측면인 ‘어휘 선정’, ‘등급 배열’, ‘단어의 정보 제시’가 상호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어휘 선정’과 ‘등급 배열’은 상용성이란 각도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휘 요목 설계에 있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자를 분리해서 제시함에 따라 각각의 원칙에 ‘상용성 원칙’이 포함되는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설계 기준에 있어 ‘유연성(靈活性)’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는 우선 본 설계 체계의 핵심 기준인 ‘실용성 원칙’을 조작 원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개념으로 설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휘 선정에 있어 ‘자유선택도’를 설정함으로써 유연성이 개입되고 있으며, 단어의 정보 제시에 있어서도 또 다시 실용성 원칙을 근거로 ‘유연성 원칙(靈活性原則)’을 설정하고 있다. 어휘 요목을 설계함에 있어 목적에 따라 유연성이 개입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주관성을 띠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

馬淸華(2008)에서는 어휘요목의 설계함에 있어 빈도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馬淸華(2008)에서 제안한 어휘요목 설계의 과정이다.



위의 도식을 보면 어휘요목 설계에 있어 우선 王漢衛(2007)와는 달리 설계의 과정이 일원적인 단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설계 과정은 크게 '화용 기준(語用標準)', '문법기준(語法標準)', '의미기준(語義標準)'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제1층위의 기준은 '화용기준(語用標準)'으로, 빈도수를 토대로 어휘를 선정한다. 제2층위는 '문법기준(語法標準)'으로, 기능어와 내용어를 분류한다. 제3층위는 기능어와 내용어로 다시 분류된다. 기능어의 경우는 빈도수인 '화용 기준(語用標準)'에 따라 다시 분류하며, 내용어의 경우에는 빈도수인 '화용기준(語用標準)'을 토대로 하되, '의미기준(語義標準)', '화용기준(語用標準)', '문법기준(語法標準)'에 따라 보완된다. 먼저 '의미기준(語義標準)'에는 '높은 숙지도(高熟知度)'와 '높은 연상도(高聯想度)'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馬清華(2008)에서는 숙지도가 높은 어휘와 빈도수 사이에 비대칭 관계¹⁵⁾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고숙지도가 어휘 선정의 보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연상성이 높은 단어들 역시 빈도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밀접한 의미적 관계를 이루므로 보완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화용기준(語用標準)'에

15) 馬清華가 제시하고 있는 고숙지도 어휘와 빈도수의 비대칭 현상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작문 분석 결과, 교통수단 어휘의 사용빈도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숙지도와 관심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반의어쌍에 있어서 '大', '長', '寬', '高', '深' 등의 빈도수가 '小', '短', '窄', '低', '淺' 등 보다 훨씬 많지만 반의관계는 쌍을 전제로 성립되므로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양자의 숙지도와 중요성의 차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금기어의 경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빈도수 조사에서 극히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외국 학생들이 비정규적 경로로 금기어를 배우고 있다. 이 또한 빈도수와 숙지도의 비대칭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2-124쪽 참조.

16) 馬清華가 제시하고 있는 고연상어 어휘와 빈도수의 비대칭 현상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결합관계: 「詞彙大綱」에 '扇子(도구)'는 수록되어 있으나 '扇(동작)'은 없으며, '詐騙, 騙, 欺騙(행위)'는 있으나, '騙子(행위자)'는 없다.
- 반의관계: 「詞彙大綱」에 '外科'는 수록되어 있으나 '內科'는 없으며, '悲劇'는 있으나, '喜劇'는 없다.
- 집합관계: 「詞彙大綱」에 '星期日/星期天'은 있으나 '星期一~星期六'는 없으며, '大於', '等於'는 있으나 '小於'는 없다.
- 상, 하위 관계: 「詞彙大綱」에 '寡婦', '光棍兒'는 있으나 '單身'은 없으며, '省長', '市長',

는 ‘내용의 현실성(內容現實性)’과 ‘학습자 부합성(任務針對性)’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내용의 현실성(內容現實性)’은 어휘의 시대적 진부성을 가리키는데, 빈도수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진부한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빈도수에만 의존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의 현실성이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자 부합성(任務針對性)’은 특정 대상의 필요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詞彙大綱」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이 누락¹⁷⁾되어 있다. ‘문법기준(語法標準)’에는 ‘대체가능성분 우선 원칙(可替用優先原則)’와 ‘기초성분 우선 원칙(基礎優先原則)’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대체 가능어 우선 원칙(可替用優先原則)’는 ‘비제약성 활용어(無限自由詞)’가 ‘제약성 활용어(有限自由詞)’에 비해 우선적으로 요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말하는데, ‘비제약성 활용어(無限自由詞)’는 독립적 활용이 자유로운 단어를 가리키며 ‘제약성 활용어(有限自由詞)’는 독립적 활용에 제약이 있는 단어를 가리킨다. ‘기초어 우선 원칙(基礎優先原則)’는 인지적 각도에서 볼 때 형태적으로 기본이 되는 단어를 먼저 익히고 그 단어에서 형태가 확장된 복잡한 단어를 익힐 경우 훨씬 효과적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馬清華(2008)이 제시한 위의 어휘요목의 설계 과정 및 기준들은 빈도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화용기준(語用標準)’, ‘문법기준(語法標準)’을 설정함으로써 정량적 측면에서 「詞彙大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위의 설계 과정과 기준들은 거의 대부분 ‘어휘 선정’에 국한되어 있어 어휘요목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인 ‘등급 배열’과 ‘단어의 정보 제시’ 측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로는 제 1층위의 기준으로 ‘화용기준(語用標準)’ 즉 빈도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빈도 통계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록 단위의 확정이다. 수록 단위는 어휘요목의 구성성분으로 구성성분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빈도 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縣長’, ‘局長’, ‘科長’은 있으나 ‘公務員’은 없다.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4-127쪽 참조.

17) 「詞彙大綱」에는 ‘武術’, ‘太極拳’, ‘幹爸/幹爹, 幹媽/幹娘, 幹兒子/幹女兒’ 등의 중국적 특색을 담고 있는 어휘들이 누락되어 있으며, ‘公安局’, ‘回國’ 등 외국인 유학생과 관계가 밀접한 어휘들이 누락되어 있다.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128쪽 참조.

IV.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 설계 방안

본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어휘요목 설계에 있어 요구되는 기준들과 각 기준들의 유기적 관계 설정에 대해 초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 어휘요목 설계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어휘의 선정 기준

어휘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수록 어휘의 단위 문제이다. 수록 어휘의 단위 문제는 어휘요목을 이루는 구성성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빈도 통계에 앞서 확정되어야 한다. 단위 문제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詞彙大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新HSK의 어휘목록이 지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詞彙大綱」은 형태소와 단어, 구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新HSK의 어휘목록은 표면적으로는 「詞本位」를 추구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동목구조나 성어 등이 혼재되어 있다.¹⁸⁾ 학문적 개념으로 볼 때 ‘어휘’는 ‘단어와 단어처럼 활용되는 구’를 지칭한다. 하지만 어휘요목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학문적 개념에 구애를 받기 보다는 간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므로 ‘단어’를 수록 단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단어 정보 제시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용성의 측면에서 상용되는 성어나 관용어, 속담 등은 수록하되 각 등급별 말미에 부록의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어휘요목의 말미에 부록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어휘 선정의 두 번째 단계는 수록 단위를 기준으로 한 상용성 분석이다. 「詞彙大綱」은 단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상용성 분석에 근거했기 때문에 동형어의어나 다 품사어 등의 상용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상용성 분석은 趙金銘·張博·程娟(2003)에서 제안했듯이 우선 단어의 의미항목이 분석 단위가 되어야

18) 新HSK의 어휘목록에는 ‘打電話’, ‘下雨’, ‘踢足球’ 등의 동목구조와 다량의 성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정성적 측면이다. 정성적 요소로는 중국어 교육 영역에서의 실용성과 어법요목과의 연계성, 출발어에서의 실용성 등이 있다. 중국어 교육 영역에서의 실용성은 상용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편 상용도가 높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실용적인 단어들을 포함하는 기준이 되며, 어법요목과의 연계성은 기능어의 선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단순히 빈도 통계에만 근거하여 기능어를 선정할 경우, 등급별 어법항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어의 경우에는 등급별 어법항목과의 연계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모국어에서의 실용성은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한국적 어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제주도' 등의 지명, '김치'·'비빔밥' 등의 음식명, '선배(후배)', '동문(동창)' 등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등의 경우 「詞彙大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양방향적 의사소통에서는 사용 확률이 매우 높은 것들이므로 상용도를 보완하는 하나의 정성적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등급 분류

등급 분류에서는 우선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지와 그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가 다루어져야 한다. 「詞彙大綱」은 주지하다시피 甲乙丙丁 4개 등급 체계를 이루고 있다. 「詞彙大綱」의 甲乙丙丁의 구분은 '對外漢語教學'을 전공하는 학생의 4년을 기준으로, 甲·乙(3000개)은 1학년 단계, 丙(2000개)은 2학년 단계, 丁(3000개)은 3, 4학년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부 2년은 어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이며 후반부 2년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본 것이다.

新HSK의 어휘목록의 경우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CEFR)》의 등급 분류를 수용¹⁹⁾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9) 新HSK와 《CEFR》의 상관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정윤철, 〈新HSK의 이론적 토대 분석과 향후 대외한어교학에의 영향 관계 모색〉: 중국학 제36집, 대한중국학회, 2010을 참조 바람.

新HSK	CEFR
HSK (六級)	C2
HSK (五級)	C1
HSK (四級)	B2
HSK (三級)	B1
HSK (二級)	A2
HSK (一級)	A1

1급에서 6급까지의 6개 등급은 《CEFR》의 등급 분류인 A1~C2에 그대로 대응되는데, 《CEFR》에서 제시하는 A1~C2의 포괄적 언어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숙달된 언어 사용	C2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C1	수준 높고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확연히 드러나게 어구를 찾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립적 언어 사용	B2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B1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p>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p> <p>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p> <p>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짚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기 초 적 언 어 사 용	A2	<p>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p> <p>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p> <p>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다.</p>
	A1	<p>구체적인 요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묻고,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p>

위의 여섯 단계 수준을 살펴보면 초급·중급·고급의 대분류를 토대로 각각 두 단계로 다시 소분류하고 있다. 대학의 중국어 교육 목표를 학년보다는 학기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또 현재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新HSK과의 호용성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 어휘요목의 등급 분류는 「詞彙大綱」의 4개 등급보다는 新HSK의 6개 등급 분류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학의 8학기를 어떻게 6등급 체계와 대응시키는 지의 문제가 남는데 대체로 대학 3학년과 4학년에 개설된 교과 과목의 등급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 4학년 단계에는 전공 외국어의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교과 과정 역시 사회 진출과 관련해 응용적 성격의 과목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3학년과 4학년은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숙달된 언어 사용	C2	4학년
	C1	3학년
자립적 언어 사용	B2	2학년 2학기
	B1	2학년 1학기
기초적 언어 사용	A2	1학년 2학기
	A1	1학년 1학기

어휘의 등급 분류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단어의 등급 귀속 문제인데, 앞서 어휘 선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 단어의 의미항목에 근거해 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馬清華(200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지적 현저성에 근거하여 상용되는 반의어쌍과 동일 어휘장 내의 단어들, 연상도가 높은 단어들, 조합관계가 밀접한 단어들의 경우에는 정성적 처리를 통해 동일 등급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3. 정보 제시

단어의 정보 제시에서 핵심은 의미항목별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詞彙大綱」의 미비점이기도 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단어의 정보에는 의미 항목을 기준으로 수록된 단어의 성질(품사), 음성적 정보(讀音 및 輕聲, ‘兒’화)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 더 고려될 것은 한중동형이의어에 대한 정보 제시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 중 한중동형이의의 한자어에 의한 간섭으로 발생하는 오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오류분석²⁰⁾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예)

1급 方便1 ㉠ fāngbiàn 편리하다, 편리하다 ㉡ 這裏的交通很方便。

3급 方便2 ㉢ fāngbiàn 편리하게 하다 ㉣ 方便群眾。

1급 緊張 ㉤ jǐnzhāng a 긴장하다, 떨다 ㉥ 他很緊張。

4급 緊張 ㉦ jǐnzhāng b 공급이 부족하다 ㉧ 電力緊張。

20) 한중 동형이의의 한자어의 간섭현상에 대해서는 맹주역(2001), 신승희(2004), 조동매(2004), 이정희(2006)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5급 先輩 ㉡ xiānbèi 연장자, 선구자 || 繼承先輩的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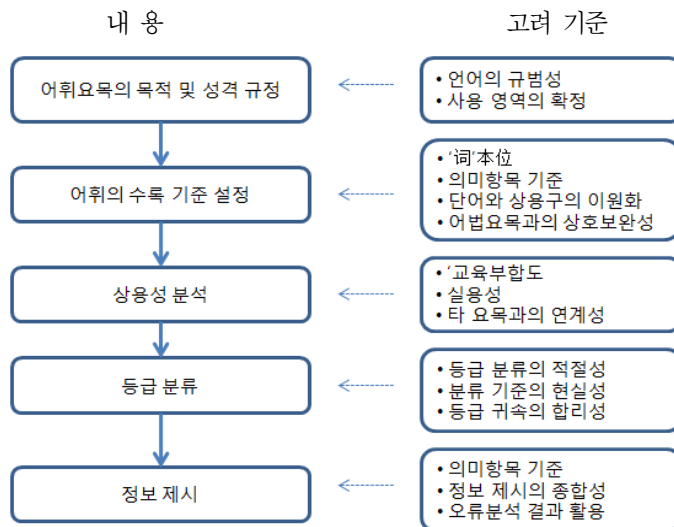
※ ㉡ 선배(先輩) → 3급 學長

‘方便’과 같은 다품사어의 경우에는 품사별 상용도에 근거해 등급을 분류하고 단어에 숫자를 표기해 다품사어임을 표시해 줄 수 있으며, ‘緊張’과 같이 상용되는 여러 의미항목을 지닐 경우 각각의 의미항목에 근거해 등급을 분류하고 의미 제시 부분에서 영문자 등의 방식을 통해 의미항목을 구분해 줄 수 있다. 또 ‘先輩’와 같이 한중동형이므로 인한 간섭이 자주 발생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 줄 수 있다.

4. 중국어 어휘요목 설계 과정

앞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의 세 가지 구성 영역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각 설계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설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 과정



위의 설계 과정은 일원적 단계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휘요목의 실제 설계 과정을 염두에 둘 때 작업의 선후 과정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어휘요목의 목적 및 성격 규정' 단계에서는 대상 어휘의 언어적 규범성과 사용 환경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언어의 규범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이라는 사용 환경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어휘 수록 기준 설정' 단계에서는 '詞本位'를 중심 기준으로 하되 각 단어의 의미항목을 수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어나 관용어, 속담 등의 고정구의 경우에는 요목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하나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법요목과의 상호 보완적 기준이다. 예를 들어 '嗎', '呢', '了' 등의 어기조사와 '了', '着', '過' 등의 동태조사, '的', '地', '得' 등의 구조조사와 같이 어법 기능만을 하는 기능어의 경우 어휘요목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휘요목은 어법요목, 의사소통기능요목, 문화요목 등 타 교수요목과의 상호 보완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교수요목이 실제 교육에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기능어의 경우 이미 어법요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므로 굳이 어휘요목에 중복해서 수록할 필요가 없다. '把'와 같은 경우에도 내용어로 쓰일 경우에만 해당 의미항목을 근거로 어휘요목에 수록하면 될 것이며 전치사 용법의 경우에는 어법요목의 '把'자문에서 다루면 충분할 것이다. 이처럼 어휘요목과 어법요목의 상호 보완성 각도에서 어법 기능어를 처리하면 어휘요목의 성격이 더욱 선명해지고 어법요목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성 분석' 단계에서는 빈도 통계에 근거하되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이라는 교육 영역 부합도와 실용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타 요목과의 상호 보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 요목과의 상호보완성은 '어휘 수록 기준 설정' 단계에서와는 달리 주로 내용어와 관계된다. 예를 들어 문화요목의 1급에 중국의 색채문화가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교수요목 간의 유기적 결합을 고려할 때 어휘요목의 1급에 상용 색채어가 수록되어야 할 것이며, 의사소통기능요목의 1급에 기호(嗜好)표현이 제시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어휘요목의 1급에 기호 표현에 필요한 상용 동사와 상용 정도부사, 상용 명사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등급 분류' 단계에서는 앞 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호용성의 각도에서 6등급 체

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대학의 4년 과정과 연계하여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등급 귀속에 있어서 반드시 의미항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보 제시’ 단계에서는 단어의 의미항목을 기준으로 독음, 품사, 의미, 활용예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오류 빈도가 높은 동형이의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나오기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중국에서 개발된 어휘요목 또한 한국의 중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어휘요목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설계의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對外漢語教學에서 어휘교육의 근거가 되어 왔던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의 설계 기준을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와 연결 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이 지니고 있는 설계 기준의 한계점으로 인해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의 설계 기준과 과정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어휘요목의 개발은 한자요목, 어법요목, 의사소통기능요목, 문화요목 등 중국어 교수요목을 구성하고 있는 타 요목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중국에서의 어휘요목은 타 요목과의 이러한 유기적 연계 속에서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요목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타 요목과의 연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사실 어휘요목의 개발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설계 기준과 과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그리 난망한 것도 아닐 것이다. 향후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요목 설계와 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參考文獻】

- 李紅印,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收語分析〉; 語言文字應用 第4期, 2005.
- 劉英林·宋紹周, 〈論漢語教學字詞的統計與分級(代序)〉;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 1992.
- 馬清華, 〈唯頻率標準的不自足性〉;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8.
- 王漢衛, 〈論詞彙大綱研制原則〉;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第3期, 2007.
- 楊寄洲, 《對外漢語教學初級階段教學大綱》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9.
- 尹春梅,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問題研究綜述〉; 烏魯木齊成人教育學院學報, 2008.
- 張霞·邱野, 〈“漢語水平詞彙和漢字等級大綱”研究20年述評〉; 淮海工學院學報 第10卷, 2012.
- 趙金銘·張博·程娟, 〈關於修訂《漢語水平詞彙等級大綱》的若幹意見〉,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3.
- 漢語水平等級標準研究小組, 《漢語水平等級標準和等級大綱》北京, 中國對外漢語教學學會, 1988.
-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2.
- 맹주억, 〈한국인의 중국어 어휘 오류분석〉; 중국학연구 제23집, 중국학연구회, 2001.
- 신승희,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 사용상의 오류분석〉; 중국언어연구 제18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04.
- 이상도, 〈중등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 선정 시론〉; 중국학연구 제43집, 중국학연구회, 2008.
- 이정희, 〈韓國學生使用漢字詞偏誤分析及其指導方案〉; 중국학연구 제36집, 중국학연구회, 2006.
- 趙冬梅, 〈母語的負遷移導致的韓國學生漢語詞語偏誤分析〉; 중국어문논총31권, 중국어문연구회, 2006.
- 정윤철, 〈통합적 중국어 교수·학습 요목의 개발에 관하여〉;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9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09.
- 정윤철, 〈新HSK의 이론적 토대 분석과 향후 대외한어교학에의 영향 관계 모색〉; 중국학 제36집, 대한중국학회, 2010.
- 김광해, 《국어어휘론개설》서울, 집문당, 1995.
- 유럽평의회 편/김한란 외 옮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동참조기준》서울, 한국문화사, 2010.

【中文提要】

本文對對韓漢語詞彙教學大綱的研制原則及方法進行了研究。爲此，首先對「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的研制原則和內容進行了考察。因爲「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是規範性的水平大綱，是中國對外漢語教學總體設計、教材編寫、課堂教學和教學測試的重要依據，將它進行分析，以期爲研制對韓漢語詞彙大綱提供參考。通過考察我們發現了「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在選詞標準、詞語分級、標注等方面仍有一些不足之處。基於這樣的分析，我們初步地提出了對韓漢語詞彙大綱的研制步驟、原則和方法。其主要表現在以下幾點：

第一，詞彙大綱的研制應該遵循使用目的及性質、選詞標準、常用性分析、等級分類及詞語分級、標注等五個步驟。

第二，爲了強化實用性，大綱徹底地實現以詞本位爲研制的基本思想。對慣用語、成語、俗語等固定詞組加以另行處理。

第三，除了利用現有的大型語料庫外，還要認真地進行義頻的統計分析。因爲缺乏義頻分析，詞彙大綱就難以避免地出現多義詞、兼類詞、同形詞的處理不當。

第四，詞彙大綱不是獨立存在的，而與其他大綱相依的。所以，在選詞、等級分類等方面要與語法大綱、文化大綱、功能大綱等有機地結合。

第五，爲了實現“對韓”這個國別化的特點，應該充分地活用以往韓漢詞彙對比研究的成果。

其實，研制一個詞彙大綱是一個需要大量的資源和時間的工作。可是，如果我們研制好它的研制標準和方法，決不是不可能做到的。

【主題語】

漢語教學，教學大綱，詞彙教學大綱，研制標準，國別化

투고일: 2013. 4. 8 / 심사일: 2013. 4. 20~5. 5 / 게재확정일: 2013. 5. 10